광주시장·전남지사 기자회견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민선 4기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시·도정 운영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1등 광주건설'의 차질없는 마무리, 박 지사는 '미래산업 육성·고용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지역발전 프로젝트들 성과 가시화"

박광태 광주시장

—민선 4기 3년 동안 성과를 꼽는다면.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다. U대회는 광주를 세계도시로 끌어올리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3년 전부터 준비해온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이 빛을 보고 있으며,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온 결과 361개 업체, 1조2천900억원 규모 투자유치로 7천736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광산업 매출도 1천600억대에서 1조3천억원까지 끌어올렸다. 광주가 수출 100억불 도시로 우뚝 섰다.

—시정을 이끌어오면서 아쉬운 점은.

▲13만4천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솔직히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 같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힘겹지만 현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나 어느 시·도도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광주는 개발독재시대에 산업기반을 확충했던 도시들과 경쟁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도청 별관 철거 논란, 야구장 건립 등 현안이 많다.

▲5월 단체와 추진단, 양쪽 입장의 의견이 팽팽한게 사실이지만 양측 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곧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현재 '10인 대책위'를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그동안 문화전당 사업을 추진해온 정부가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조정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결국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야구장 건립문제와 관련해 민자와 국고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구장 건립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고, 부지는 접근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민선 4기 성공적인 마무리 과제는.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1등 광주 건설'에 매진하겠다. 2015 하계U 대회의 성공개최 준비와 광주 'R&D특구' 지정,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발전 프로젝트들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할 것이다.

도시간 경쟁체제에서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광주의 미래발전 좌표인 '2030 광주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화를 위한 '광주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다.

—지방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2월까지는 정치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 민선 4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6개월이다. 지금부터 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광주시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주력"

박준영 전남지사

—전남도의 민선 4기 3년을 자평한다면.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기업을 유치해 성장의 씨앗을 마련한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2005년부터 추진해온 녹색정책들이 결실을 맺고, 낙후지역이라는 굴레를 벗고 지구촌 축제인 2012여수엑스포와 F1대회 성공개최 역량을 갖췄다. 또한, 총력 투자유치 활동으로 2006년부터 1천452개 기업 10조4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 5만6천 개를 창출했다.

—시·군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역통합에 대한 견해는?

▲주민들의 의사가 먼저 모아져야 한다. 정치권이든 누군가에 의해 주도된다면 갈등과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순수한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뒤 추진돼야 한다.

—무안공항이 국제공항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더러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가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안국제공항은 국가가 서남권 거점공항의 필요성에 따라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광주시와 시민들의 반발로 국내선 이전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광주공항과의 통합 문제는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무안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면세점 운영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와 간척지 문제로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농림식품부와 땅의 규모를 갖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농림식품부는 1천만 평을, 전남도는 애초 규모인 2천660만 평을 고집하며 줄다리기 중이다. 하지만, 농림식품부의 주장대로 1천만 평 만을 개발하게 되면 이는 관광레저도시가 아닌 관광단지에 불과하다. 후손들에게 개발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도록 개발속도가 더디더라도 애초 정부 용역사업으로 확정된 2천660만 평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향후 도정 방향은.

▲지속적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2020년 전남 인구 200만 명 이상을 회복하기 위한 도정의 총체적 역량을 모으겠다. 또한, 2010 F1 코리아그랑프리,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 J프로젝트 건설·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세계 진출 5대 프로젝트 성공 추진으로 풍요한 미래 전남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U대회 유치 국제도시 발돋움 발판 마련
일자리 창출 목표 차질…고용 불안 지속

광주시 3년 결산

민선 4기 3주년을 맞은 광주시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광주가 국제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달 30일 광주시는 '민선 4기 3년 성과'로 ▲경제위기 극복 및 첨단산업 중심의 수출·생산도시 구현 ▲빛고을 노인복지타운의 개관에 따른 노인복지 실현 ▲녹색성장 선도 ▲재정규모의 대폭 증가 및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들었다.

시는 우선 주력산업인 광산업과 자동차, 생활가전 등을 집중 육성해 울산과 인천에 이어 광역시 중 세 번째로 지난 2007년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재정규모가 크게 확대된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 2001년 1조8천990억원이었던 재정 규모가 2005년 2조2천858억원, 2009년 2조9천485억원으로 큰 폭으로 확대됐고, 국비는 지난 2001년 4천516억원에서 2009년 1조6천492억원으로 3.6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아쉬움도 적잖았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탓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은 3월 현재 7만8천510개에 그쳐 민선 4기 3주년 당시 2010년까지 일자리 창출 목표(13만4천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서민들의 고용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5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실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천명 증가한 2만8천명으로, 실업률이 4.1%를 기록했다. 전달보다는 3천명이 늘었다. 여기에 13만4천명이었던 자영업자 수는 1년 사이 9천명(-6.1%)이나 줄고, 일용직 근로자(5만5천명)도 같은 기간 4천명(7.4%)이 늘었다.

옛 도청별관 철거 논란이 1년 여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광주시가 구심점이 되지 못한 것도 지적사항이다. 광주시는 이 문제를 사실상 방관해오다 최근에야 지역정치인들과 10인 위원회를 구성해 해법 찾기에 나섰다.

막대한 시의 재정 보조금이 투입돼 '돈먹는 하마'로 불리는 제2순환도로 재정 보전 문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 등도 시급한 개선 대상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기업 유치·녹색 정책으로 인구 감소 둔화
지역발전 이끌 J프로젝트·F1대회 난항

전남도 3년 결산

민선 4기 3주년을 맞은 전남도는 친환경 생명산업과 저 탄소 녹색산업 등 녹색정책 결실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일자리 6만 개 창출한 점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조성사업) 등 전남 최대 개발사업과 핵심 프로젝트 등이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여전히 난항을 겪으며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전남도는 '민선 4기 도정 10대 성과'로 ▲친환경 생명산업 중심지 선점 ▲저 탄소 녹색산업 육성 ▲2대 국제행사 성공개최 준비 ▲일자리 6만 개 창출 ▲권역별 미래 산업 기반 구축 ▲서남해안 개발 기반 마련 ▲녹색체험 대표관광지 부상 ▲행복마을 조성 ▲성장거점 5대 신도시 건설 ▲SOC 대폭 확충 등을 꼽았다. 도는 특히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감소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연평균 2만6천명씩 감소하던 인구가 2006년 이후 1만 명 이하로 감소세가 급격히 둔화됐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총생산량이 전국 1위(27.2%)를 차지하고, 태양광발전 또한 311개 업체가 본격 생산에 나서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전국 45.3%를 차지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 경색과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견해 차이로 대형 프로젝트가 진척되지 못하는 점은 '낙후지역'이라는 굴레를 벗고 변신을 꾀하려는 전남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시가 급한 F1대회지원법 제정이 여야 대치로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며, J프로젝트는 자본금 확보 실패와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거의 제자리걸음 상태다.

중국자본 유치로 탄력을 받던 무안기업도시 건설은 국내 투자 유치 부진으로 한중산단 조성 사업도 주춤하는 등 이들 대형프로젝트가 지역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안국제공항도 광주시와의 의견 차이로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국제공항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